미래창조과학부	**보 도 자 료**	http://www.msip.go.kr

2015. 2. 16(월) 석간(온라인 2. 13. 15:00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오학태 과장(061-338-4500), 정삼영 연구관(061-338-4520)

국내 전자파 인체흡수율 측정기술 국제 표준화 성공

- 휴대전화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 관련 기술 국제 표준 채택 -

□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(원장 최영진)은 2015년 2월 3일부터 3일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 관련 국제전기기술위원회(IEC) 국제회의에서 국립전파연구원이 자체 개발하여 제안한 전자파 인체흡수율 자동 입력전력 제어 기술 등 2건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. 이는 곧 각국의 국가위원회(NC)에 회람 후 국제표준으로 승인될 예정이다.

※ 전자파흡수율 : 휴대전화 등 휴대용 무선기기 사용시 인체 내부에 흡수된 전자파의 양을 말함

□ 이번 회의에서 제안한 「전자파흡수율 자동 입력전력 제어 기술」은 휴대전화의 전자파 측정시 표준 입력신호를 자동으로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재의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.

-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 고속 측정기술에 관한 국제표준에도 본 기술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, 이로 인해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고속 측정기술의 정확도가 확보되어 측정기술의 표준화와 상용화가 앞당겨 질것으로 전망했다.

- 현재 휴대전화의 전자파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2주이며 향후 고속 측정 기술 적용시 1일로 단축되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설명했다.

□ 아울러, 세계최초로 무전기의 전자파 측정기술인 「저주파수 대역에 대한 전자파 인체흡수율 평가 기술」도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국제표준으로 승인될 예정이다.

□ 이번 성과는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 분야에 관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화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이며,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기술 개발 및 표준화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 끝.